진우 스님, 영국사지 '佛-儒 상생' 물꼬 트다

10일 오언석 도봉구청장 만남서
사지 상생활용 방안 긍정 화답
조계종, 지자체 등 실무협 운영
"불교-유교 상생성지 협력할 것"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0일 도봉구청을 방문해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영국사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진우 스님이 오 구청장에게 영국사지 현장서 현황을 듣는 모습.

지난 2012년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보물급 불교의식구들과 고려 고승 비편이 발견돼 서원 이전에 사찰임이 밝혀진 영국사지가 불교-유교 상생 성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0일 도봉구청(구청장 오언석)을 방문해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영국사지(도봉서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면담을 하며 영국사지를 불교와 유교가 상생·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오 구청장과의 면담 이후 동행한 기획실장 성화·문화부장 탄원 스님과 함께 영국사지(도봉서원)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영국사지(도봉서원)의 존재는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2011~2012) 과정에서 해당 구역이 영국사의 옛터임을 증명하는 성보가 발견됨에 따라 처음 알려졌다. 이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7년 해당 사역에 대한 추가 발굴을 실시해 '견주도봉산영국사(見州道峯山寧國寺)' 의 명문이 기록된 고려 초기 고승 혜거 국사(899~974)의 비석 파편을 발견하고, 이에 도봉서원이 고려 영국사 터에 건립된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영국사 및 도봉서원 터를 두고 불교와 유교 간 활용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사)도봉서원은 줄곧 사당이 있던 원래 자리에 서원의 중건을 바랐고, 조계종은 보물이 대거 발견된 유교의 사당자리, 즉 대웅전 터를 원형 보존하기를 제안했다.

조계종과 (사)도봉서원의 이견으로 11년간 표류하던 영국사 및 도봉서원 터의 활용은 진우 스님의 방문으로 물꼬를 텄다. 이날 진우 스님은 오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불교의 역사와 유교의 역사가 서로 상생하는 자리로 거듭났으면 한다"면서 "영국사지가 불교와 유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영국사 및 도봉서원 터가 불교와 유교 간 상생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영국사와 도봉서원 터 활용에 어느 한쪽도 소홀함 없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계종, (사)도봉서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도봉구는 영국사지(도봉서원)의 활용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조계종, (사)도봉서원, 서울시, 도봉구가 협력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간 협약을 실시하고, 불교와 유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 대해 조계종은 "고려 혜거 국사의 주석처이자 서울의 유일한 서원 터이기도 한 영국사지(도봉서원)가 불교, 유교의 역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도봉구 등 해당 기관의 상생 가능한 대안 마련을 재차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종단 역시도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찰 전기료 지원, 전통사찰 확대를"

총무원장 진우 스님, 여당 의원들 예방서 제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환담에서 문화재 보유 사찰에 해당되는 현행 사찰 전기료 지원사업을 전통사찰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희용 의원, 원내부대표 조명희 의원의 예방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예방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사업부장 주혜 스님, 사서실장 서봉 스님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사찰 전기료 지원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일부 사찰에만 한정돼 있다"면서 "문화재와 동일하게 국가가 지정하는 전통사찰 역시 공익적 가치와 목적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국회와 여당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공감의 뜻을 표하며 "관련된 사안을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호섭 기자

봉선사, 종단 불사에 1억 원 희사

7월 11일, 천년을세우다·승려복지 기금으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조계종 총무원이 추진하는 불사 '천년을세우다' 와 승려복지기금으로 총 1억 원을 희사했다.〈사진〉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과 부주지 도일 스님은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총무국장 혜복 스님과 김남명 교구신도회장, 이도피안 봉선사신도회장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우고 명상을 보급하기 위한 센터 건립 등 불교중흥의 밑거름이 되는 불사에 힘을 보태줘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초격 스님은 "조실 월운 스님 영결식 때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각지의 어르신들께서 다녀가주셔서 더 없이 감사하다"며 "평소 조실 스님께서 강조하신 청소년 인재양성과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 본사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문화연수원 정비 인사 단행

연수원장 우하 스님·본부장 인월 스님 임명


연수원장 우하 스님


본부장 인월 스님

조계종이 운영하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원장에 총무원 재무부장인 우하 스님이 임명됐다. 재무부장이 연수원장을 겸직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연수원 정비를 위한 총무원 차원의 포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우하 스님에게 한국문화연수원장 임명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연수원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종단 주요 소임자인 재무부장을 연수원장으로 임명하게 됐다"며 "겸직이지만 연수원에 자주 방문해 현황을 살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우하 스님은 "관련한 내용을 잘 살펴 연수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총무원 홍보국장 소임을 맡고 있던 인월 스님을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 기획실에서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회향해달라"며 "연수원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도록 제반여건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인월 스님은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종단에 보탬이 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우하 스님은 법영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사미니계)했다. 윤필암 사불선원, 대성암선원, 불영사 천축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금강사 주지와 총무원 재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화성 항하사와 봉원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을 맡고 있다.

인월 스님은 지안 스님을 은사로 2005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호국기룡사 주지, 해원사 주지, 대만 홍법원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새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현준 스님

총무원장 진우 스님, 7월 12일 지정증서 수여


덕림 스님


현준 스님

범패와 의례 등에서 높은 성취를 이뤄야 자격이 주어지는 어산종장에 비구 덕림 스님과 비구니 현준 스님이 새로 지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덕림 스님과 현준 스님에게 어산종장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어산종장은 어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후학을 잘 가르치고 전통이 여법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성불을 위해 분별심을 없애고, 그 전에 번뇌심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염불은 한편으로 명상이기도 하다"며 "어산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어산종장으로 지정된 두 스님은 "어산 분야가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덕림 스님은 불산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사미계)했다. 마곡사 태화선원, 수도암선원, 운부암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오도암 주지를 역임했다.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범패의 수행원리와 활용방안 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현준 스님은 선재 스님을 은사로 1974년 수계(사미니계)했다. 1999년부터 행자교육원 교수사 및 운영위원, 조계종 제32·33·39회 구족계 수계산림 교수사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 강남구 구룡사에 있는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교수사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전국여성불자들 보금자리 마련

조계종 여성불자회, 조계사 맞은편 사무실 개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가 7월 12일 사무실을 개소하고 한국불교 대표 조직으로의 성장을 다짐했다.〈사진〉

사무실은 서울 조계사 맞은 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옆 대광빌딩(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8) 4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회의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사무국 공간으로 꾸며졌다. 조계종 총무원과 근접해 높은 업무 효율성 뿐 아니라 여성불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개소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앞으로 단체의 발전을 치하했다.

전국여성불자회는 2022년 6월 23일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 21개 교구, 직능분야 회원 1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임은호 기자

